

대구 경북지역 초등학생들의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 및 섭취실태

권남숙 · 고봉경*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교 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식습관과 기호도는 단기간에 개선시키기는 어려우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학교급식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호한 음식기호의 형성으로 식재료간의 균형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채소류 식품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에 있어 학생들의 채소류의 인지도, 기호도, 섭취빈도 등을 조사하여 학교 급식의 식단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구 및 경북(영천, 구미, 포항) 소재 6개교 4, 5, 6학년 873명 (남자 474, 여자 399)에 대하여 2004년도 10월 25일부터 27에 걸쳐 조사 대상자의 급식과 식행동 분석, 채소 섭취에 대한 조사, 영양정보와 채소섭취에 관한 관련성 등을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정보와의 관계는 카이스퀘어 검증하였다. 대체적인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52% 정도였으며,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학생들의 식습관은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고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밥과 국'이 4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좋아하는 식재료로 채소를 답한 학생은 전체의 11.2%였으며 30종의 채소류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은 82.1%로 아욱, 토란줄기, 숙주나물, 썩갓, 양상추, 브로콜리 등에 대하여 인지도가 특히 낮았다. 채소류 기호도에 대한 대답은 "그저 그렇다"가 대체적인 반응이며 특히 아욱, 피망, 토란줄기, 풋고추, 썩갓, 숙주나물 등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채소류 섭취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이나 인식과 실제 섭취도, 채소류 섭취에 대한 선호도와 실제 섭취정도 간에는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영양정보는 영양사 (21.8%)보다는 부모님 (63.3%)으로부터 더 많이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 상대적으로 채소류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초등학생들은 각 채소들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선호도가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선호도 증가에 따라 실제 섭취도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채소류의 섭취를 높이려면 먼저 부모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담당자 : 고봉경

* Tel : 053-580-5876

* 휴대전화 : 010-6806-5876

* Fax : 053-580-5885

* E-mail : kohfood@kmu.ac.kr